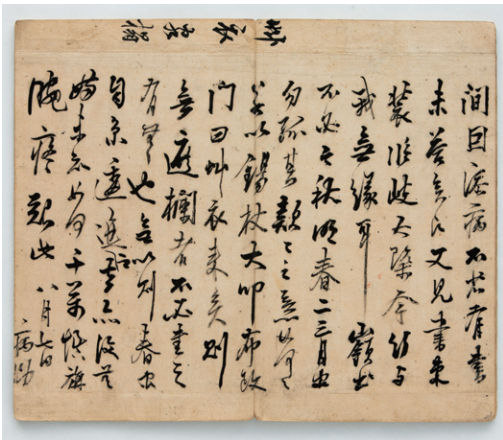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 석장으로 포정문 두드리도 막을자 없어

<주상운타점>에 수록된 추사의 편지는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자료이다. 그가 이 편지를 쓴 시점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는 “8월 7일 병록”과 “석장으로 포정문을 크게 두드리며 초의가 왔다고 한다”이다. 포정문은 조선시대에 감사가 집무하던 포정사의 정문을 말한 것으로, 대략 이 편지는 추사가 벼슬을 했던 시기에 쓴 것이라 추정된다. 아울러 초의가 여행을 준비한 후, 함께 동행을 바라는 편지를 보냈다는 점에서 대략 1838년 이전 8월7일에 쓴 것이라 짐작된다. 한편 추사는 연이어 보낸 초의의 편지에 답을 못했던 탓에 자신의 병이 심해졌기 때문이라니 그 사연을 들어 보자.



<주상운타점>에 실린 추사의 편지

초의가 행장을 준비하여 행차하려는 사정을 알았지만 동행할 수 없었던 그는 “지금의 행차는 나와 인연이 없을 듯”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한편 초의의 행차는 무엇일까. 그 상세한 것은 알 수 없으나 초의가 금강산을 여행하기 위해 두 번을 계획했으니 1834년과 1838년의 일이다. 초의는 두 번째 한양을 방문한 후, 1834년 가을, 취연과 함께 금강산 유람을 계획하고, 철선과 만휴도 함께 가려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신현의 <금당기주(琴堂記珠)>에 “두 선사(초의와 취연)가 산천 김명희와 함께 금강산을 유람하기로 약속하고, 불등을 가리키며 서약하였다. (초의가)천리 길을 달려와 약속을 지켰지만 산천이 병이 나서 그만두었다. 산천의 병을 살펴며 수일동안 머물렀다”라고 한 것에서도 확인된다. 결국 초의의 첫 번째 금강산 유람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 것.

따라서 이 편지는 이러한 전 후 사정을 알았던 추사가 초의를 위로하기 위해 “무슨 일이 없다면 봄에 천천히 한양을 다녀가는 것도 무방합니다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한 것은 아닐까. 그가 초의에게 “가을이나 명년 봄 2-3월간에 (그것을) 혼자만 즐기 않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말한 행간에서는 함께 할 수 없는 아쉬움이 전하게 전해진다. 더구나 그가 “만일 석장으로 포정문을 크게 두드리며 초의가 왔다고 말한다면 난간을 막는 자가 없다”고 한 말은 이들의 신의가 얼마나 돈독했는지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박동준(동아시아 문화연구소장)

### 금강산 유람 무산된 초의를 달래 추사가 벼슬했던 시기에 쓴 편지

未知如何 千萬慎旃 腕疼難此 八月 七日 病瀾)

이 편지의 표봉에 “초의객담(艸衣客榻)”이라 하였으니 초의의 행차(行處)가 대문사가 아닌 것은 분명해 보인다. “초의객담”이란 대개 “객지의 나그네 초의에게”라는 의미이다. 또한 추사가 높은 관직에 올랐던 것은 대략 1835년 8월 좌부승지에 임명된 것과 1836년 성균관 대사성, 1839년 5월 형조 참판에 낙점된 것이다.

따라서 이 편지에 “만일 석장으로 포정문을 크게 두드리며 초의가 왔다고 말한다면 난간을 막는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1838년 이전의 편지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울러

그 사이 병이 심해짐으로 인해 (그대가 보낸) 편지를 살펴볼지 못했고, 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곧 이어 보낸 편지에 행장을 갖추어 (떠나려는)길립길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체로 지금의 행차는 나와 인연이 없을 듯합니다. 영남에서 보낸 글처럼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할 수는 없지만 가을이나 명년 봄 2-3월간에 (그것을) 혼자만 즐기 않는 것이 어떻습니까. 만일 석장으로 포정문을 크게 두드리며 초의가 왔다고 말한다면 난간을 막는 자가 없을 것이니 편지의 유무에 기필할 것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없다면 봄에 천천히 한양을 다녀가는 것도 무방합니다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팔이 아파 이만, 8월 7일 병록(間因添病不省有書未答矣 即又見書束裝臨岐 大槩今行與我無緣耳 嶺書不必而秋明春二三月間 勿孤其款款之意 如何如何 若以錫杖大印布政門日 艸衣來矣則無避欄者 不必書之有無也 無以則春間 自京逶迤而去 亦復無妨

# ‘풍경소리’ 전법 14년 원칙 지킬 때 ‘성취’

이용성 (지하철 부처님 메신저 ‘풍경소리’ 사무총장)

도시 곳곳에 나 있는 지하철은 시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사랑받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붐비 때로는 “지옥철”이라는 말을 듣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애환과 추억이 담겨있다. 바쁜 일상생활을 대변하는 지하철에서 조용히 한편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풍경소리’다.

14년 넘게 ‘풍경소리’를 이끌고 있는 이용성 사무총장은 “풍경소리는 이름과 같이 은은한 울림과 차분한 감동으로 대중들에게 다가가고 있다”며 “처음 풍경소리를 시작할 때는 재정적인 문제 등 어려움이 말할 수 없을 정도였지만 현재는 큰 어려움 없이 운영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 풍경소리는 2012년 큰 어려움을 겪었다. 서울시의 지하철 역사환경 개선사업에서 게시판 철거 방침이 내려진 것이다. 연말까지 철거하라는 지시에 십수년간 문화포교의 뜻을 갖고 매진해 온 풍경소리 직원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서울시 측이 종교적 부착물을 철거하라고 지시했고 서울시 지하철 환경개선시민개혁단이 쾌적한 지하철 환경의 저해 요소로 게시판을 예로 들었기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서울시의 이러한 방침은 곧바로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풍경소리 게시판 철거 소식이 전해지자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는 ‘지하철 문화 아이콘 풍경소리·사랑의 편지 철거를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이슈 청원이 올라왔고 2000여명의 누리꾼이 여기에 동참했다. 이 흐름 때문인지 결국 서울시 측이 백지화로 선회했다.

“시민들의 반응에 놀랐습니다. 그동안 문화포교 일환으로 시민들의 마음수행이나 잠깐의 휴식을 제공해 온 풍경소리의 방향이 옳았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 1999년 첫 발 이후 2500 게시판

현재 풍경소리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설 비영리 문화포교단체다. 1999년부터 전국 철도역과 지하철역 등에 게시판을 통해 부처님 말씀을 전파해왔다. 바른 생활로 인해 시달리는 시민들에게 풍경소리는 잔잔한 울림과 감동을 주는 시원한 샘물이었다.

“1999년 8월 말 달체가 태동했어요. 그해 9월 28일 1호선부터 4호선까지 게시판 설치가 끝난 것을 창립일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지하철과 수도권전철 인천, 대구, 부산, 광주, 대전지하철 등 총 2500개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군부대, 학교, 교도소 등 공공기관 화장실 등에도 작은 문구판을 설치하고 있어요.”

이용성 사무총장은 일반 대중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불교의 목표가 불교신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부처님 가르침에 맞게 살아가는 것. 운영되는 것이 결국 포교의 목적이 아닐까요?”

풍경소리 운영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협찬 및 기부가 큰 힘이다. 게시판 하나당 운영비는 5만원 수준으로 2500개 게시판을 교체하고 관리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설치하는 것 보다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불이는 그보다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초기 시작할 때는 총지중에서 목돈을 대줬어요. 삼천사에 이어 도선사 등 다양한 사찰에서 게시판 설치 등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도움을 준 사찰은 게시판 하단에 이름을 넣고 있어요.”

이 사무총장은 비영리단체의 활동들이 후원금이나 기부금에만 단순히 기대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재정적인 안정을 이끄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고료 및 운영비 마련이 쉽지는 않지만 시민들의 반응이 좋기에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게시된 내용을 모아 단행본을 내는 한편 외국인들을 위해 영문으로 된 글도 함께 실고 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풍경소리만의 원칙은 지킬 필요가 있다. 일상에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글이 우선입니다. 예전에는 사찰에서 큰 스님 글을 실으면 협찬비를 주겠다는 제안도 있었어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풍경소리의 게시판에 실리는 글은 풍경소리 사무진에서 작가들에게 청탁하거나 독자들이 보내오는 글을 10인으로 구성된 편집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채택한다. 교정 등의 과정을 거치면 대략 2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 1998년 중단사태가 풍경소리 날아

그렇다면 풍경소리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을까. 이리나리하게도 불교계의 중단사태로 사회에 지탄을 받던 1998년이 시발점이었다. 그 중심에는 이용성 사무총장이 있었다.

“당시 중단 사태로 불교가 사회에서 안 좋게 보이던 때였습니다. 당시 중단 사태에 연루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 책임감을 느꼈어요. 불교계가 사회에 어떻게 기여하고 인식을 다시금 회복할 것인가는 고민에 빠졌던 차에 개신교가 지하철 공간에서 하고 있던 ‘사랑의편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개신교의 ‘사랑의 편지’는 1992년부터 지하철에 다양한 문구를 게시하고 있었다.

### 1999년 불교시민운동 차원 설립

400개 게시판서 현재 2500개로 증가  
잔잔한 울림·감동의 콘텐츠로 자리

### 1981년 중앙대 불교학생회 활동

재정적 어려움에도 원칙 고수  
미디어 발전 맞춘 문화포교 계획

“불교활동가들이 불교 내부 개혁만 바라보거나 아예 시민운동으로 치우치는 상황에서 불교적인 콘텐츠로 시민운동을 펼쳐보자는 시합적 성격도 강했어요. 당시 불교가 시민들에게 비취진 불미스러운 것들이 조금이나마 치유가 되고 상처를 아물게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아래에 자리하고 있었죠.”

이 사무총장은 요즘에는 템플스테이러던지 사찰음 악회 등 시민들과 소통하는 불교콘텐츠가 많아져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무총장은 “풍경소리도 게시판 글뿐만 아니라 친환경 생산물, 가품품, 효소 등의 나눔과 모음집 발간 등으로 콘텐츠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 불교 바로잡기 나선 이후 풍경소리에서 14년

그렇다면 이 사무총장은 어떻게 풍경소리와 인연을 맺게 됐을까? 풍경소리 산파 역할을 한 이 사무총장은 어려서부터 불교계 활동가를 꿈꿔왔다. 불자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고등학교 때부터 불교학생회에서 활동했다. 1981년 중앙대에 입학한 그는 대학 내 불교학생회에서도 활동을 이어갔다.

“당시는 전두환 대통령 때였어요. 광주민주화운동 비디오향을 보니 내가 사는 땅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당시 중앙대에서는 정치경제학 모임 등 스터디를 통해 학생들 사이에 민주화 운동의 움직임이 일었다. “그러다 모임을 이끌던 선배들이 단체로 잡혀갔어요. 모임이 해체가 되며 불교운동과 사회운동을 결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 사무총장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에서 사회과



이용성 풍경소리 사무총장이 진행하는 풍경소리 명상학교 명상강좌는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으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로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불삼!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뒹뒹) 8cm]

## 94년도 보이차 茶

### 본초강목속우(本草綱目拾遺)

“보이차고는 여러 가지 병을 고칠 수 있는데 보이차는 장을 원활하게 하여 그 움직임에 걸림이 없게 한다. 보이차는 까만 옷 빛깔과 같은데 술을 깨는 데는 이만한 것이 없다. 보이차는 음식을 소화시키고 담을 풀어주며 위장의 운동을 촉진하여 그 즙을 잘 생기게 하는 바, 그 효능은 참으로 크다. 입안에 목에 상처나 염증이 있으면, 차고름 5분정도 머금으면 다음날이면 낫는다. 테었을 때도 상처에 바르면 치료된다.”

### 사모채방(思茅採訪)

“소화를 도와주며 한랭한 기운을 몰아내고 해독작용을 한다.”

### 백초경(白草經)

“풍이 생기거나 음식이 잘 다스려지지 않거나 화기가 일때.... 보이차 두잔을 끓여서 복용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기운이 모두 밖으로 나온다.”

### 청나라 오대운(吳大勳)의 전남경 문록

“보이차의 효능은 음식을 소화시키고 기를 다스린다. 막힌 것을 풀고, 풍한(風瀆)을 치료한다. 사람에게 가장 유용한 물건이다.” 라고 극찬.

### 물리소지식(物理蘇知識)

“보이차는 찻서 덩어리로 만드는데, 서번에서 사 갔으며, 모든 물건을 잘 소화한다.”

### 수식거음식보(隨息居飲食譜)

“차는 약하게 쓰고 달며, 찬기운이 있다. 보이차는 맛과 기운이 강하고 세며 구토, 풍, 가래에 좋고 고기를 잘 소화시키고 장염이나 이질, 콜레라도 치료한다.”

### 94년도 산차 120g

차통(자사) 크기 : 높이 9cm × 지름 7cm

◆ 가액 : 11만원 (택배비 무료)



판매처 : 현불삼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이용성 풍경소리 사무총장은... 이용성 사무총장이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의 풍경소리 게시판을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다. 1981년 중앙대 철학부에 입학한 이용성 사무총장은 1986년부터 민중불교운동에 뛰어들었다. 1987년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에 민중불교연합회 대표로 참가하기도 한 그는 1988년 대승불교승가회 간사 등을 맡는 등 불교계 활동을 이어갔다. 1998년 중년사대 이후 풍경소리 창립을 이끌어 현재까지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풍경소리 사무 외에는 5사단 수색대대 및 GOP대대 군법회를 2002년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풍경소리 명상학교에서 명상지도에 나서고 있다. 사진=박재원 기자 wanihollo@hyunbul.com

학 스티디를 하며 사회운동을 펼쳤다. 3학년이 되며 대불련 중앙본부에서 조직부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러다 그해 9월에 육군으로 강제 징입됐어요. 이른바 녹화사업이었죠. 1986년 제대하고 나온 뒤 노동운동에도 뛰어들었습니다.”

성남에서 불교노동운동을 한 그는 1986년 말 민중불교연합회로 갔다.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이후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에 민불련을 대표해 파견근무를 하기도 했다. 1988년 이후에는 명진, 성문 스님이 주축이 된 대승불교승가회의 간사를 맡기도 했다.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며 민주화 운동이 노동운동 등으로 변화했어요. 제 삶에도 변화가 왔습니다. 결혼 후 가정을 일구며 생계수단이 필요해진 거죠.”

이 사무총장은 그 후 광고기획사를 차리기도 하고 보합설계사 일을 하기도 했다. 아인 생활이었다. 그 와중에 97년 경 불교계에서 다시 일해보지 않겠다는 제안이 있었다. 98년 종단 분규 때였다.

“당시에 느낀점이 있어요. 높은 이상, 대의도 이권이 개입되면 한순간에 변질되는구나 라구요.”

가나’며 반갑게 인사하는 거예요. 사무실 사정을 얘기 하니 ‘그럼 있어봐’ 하더니 보문사에 수소문을 해서 인연다리를 놓아줬어요.”

풍경소리는 보문사에서 2012년까지 11년 동안 있었다. “밀린 액자대금을 탕감해 준 액자회사부터 직원들 월급이 부족할 때마다 돈을 대준 스님들까지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이 부처님의 가피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탐욕이 깨져되지 않는다면 모든 일은 성취되게 돼있다’ 고요. 항상 초심을 잊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풍경소리는 2001년 부처님오신날 주간에 불교계 최초로 봉축열차를 꾸미고 행사에서의 모금액을 백혈병 소아암협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게시판 하단에 불교계 복지시설을 소개해 후원 홍보를 진행하기도 했다.

“저희 이사회가 열리면 그런 질타가 나오기도 합니다. 힘들어서 결덕결덕 대면서 도울 돈이 있느냐는 것이죠. 하지만 운영과 나눔 실천은 틀린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원칙을 지켜왔기 때문에 지금의 풍경소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무총장은 명상 등을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풍경소리 명상학교 프로그램을 개강했다. 명상의 대중화를 통해 사회가 맑게 하자는 취지다. 먼 미래에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 계획도 있다.

“요즘 기술이 날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에서도 게시판 외에도 여러 방법이 새로이 활용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젊은 불자들이 뜻을 갖고 함께 했으면 합니다. 인생의 목표를 불법에 따르고 대중을 위해 회향한다는 생각을 가진 젊은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초심을 잃지 않고 젊은 마음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자 한다는 이용성 사무총장의 모습에서 문화포교란 터전을 가꾸는 젊은 기운이 넘쳐 나왔다.

운영 어려움에도 나는 실천 원칙 지킬 것

풍경소리는 그동안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사무실 임대료가 없어 옮겨 다니기도 여러 차례였다. 하지만 이 사무총장은 풍경소리의 창립정신을 지키고자 노력했다.

“견지동에 있을 때였어요. 사무실 임대료를 올려달라는데 당시 350만원에 30만원을 월세로 냈어요. 450만원에 4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하는데 월세는 어떻게 해봐도 보증금 100만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든 생각이 ‘아 부처님께서 무료로 사무실을 구하라고 이렇게 상황을 만드셨구나’ 하고 사찰로 사무실을 구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좀 규모가 있다는 사찰들이 죄다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날 사무실 걱정에 힘없이 터덜터덜 사무실로 걸어 들어오는데ucci제일 법사가 ‘어디



GOP에서 불자 장병들과 함께. 2002년부터 5사단 수색대대에서 위문법회를 진행하고 있는 이용성 사무총장(가운데).

전법일기

영어담마캠프 이야기(1)

이른 아침부터 아이들의 마음만큼 나의 마음은 설렌다. 이번 캠프에는 또 어떤 아이들을 만나게 될까? 어느덧 7회째를 맞는 영어담마캠프지만 매년 아이들의 캠프 접수가 시작되는 2달 전부터 나의 가슴은 두근거리기 시작한다. 나의 캠프에는 캠프 매니아들이 있다.

매년 여름 우리는 1년에 한번만 만나는 날이 오면 견우와 직녀처럼 서로의 모습을 그리며 잠을 설친다. 버스에 오르며 “스님! 저는 어제 밤에 스님을 만날 생각을 하니 설레서 잠을 잘수 없었어요” 하고 수줍게 이야기하는 캠프의 말쑤꾸러기들은 어느새 나의 마음을 녹여버린다. 또한 특이한 것은 이전 캠프의 말쑤꾸러기들은 꼭 다음 캠프에도 참가한다는 것이다. 참으로 묘한 일중에 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올해는 팔공산 은해사로 캠프를 떠난다. 이번에는 나의 출가본사인 은해사로 결정을 하였다. 그것은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은해사를 비롯 백운암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두해 전 캠프 홍보가 나갔을 때 걸려온 전화 때문이기도 한다.

“스님에, 정말 우리 아이 스님 캠프에 보내고 싶는데 너무 멀어. 언제 대구 근처에서도 한번 해주시소~”

당시 어머니의 목소리가 참으로 간절하여서 언젠가는 대구에서 해야 했던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현실화 된 것이다. 매년 캠프에는 아이들 60~70명 교사30명, 늘 100명에 가까운 인원이 움직인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 마음속에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캠프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즐거워할 아이들의

말쑤꾸러기들과 5박 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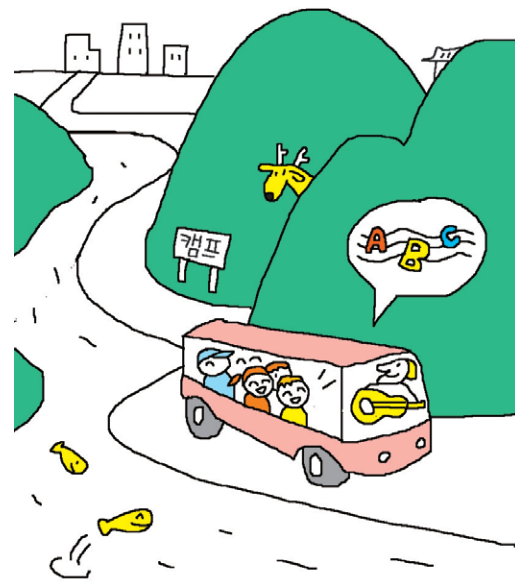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모습을 생각하면 환희심이 가슴 가득 솟는다. 미래의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나와 나는 둘이 아니라는 연기법적 이해와 생각의 멈춤을 통해 고요함으로 돌아가게 하는 수행프로그램을 많이 변화시킨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영어를 통하여 진행해보면 아이들은 종종 새로운 느낌과 다짐을 하게 된다.

버스가 출발하면서부터 간단한 아침식사와 함께 각 팀을 구분하는 색깔 팔찌가 주워지고 영어로 된 팀명에 대한 설명이 시작된다. 팀명은 육바라밀이다. Energy(정진), Patience(인욕), Giving(보시), Morality(지계), Wisdom(지혜), Meditation(선정).

다음은 외국인교사인 캐더린과 라노의 지도 아

래 영어로 된 캠프 노래 두곡을 배운다. 아이들의 눈은 말쑤말쑤. 잘 안배는 발음을 비슷하게 흉내를 내며 열심히 따라 한다. 안전 벨트를 확인하고 돌아서면 어느새 우리 말쑤꾸러기들은 의자 위로 넘나들며 장난을 친다. 교사들과 함께 다시 제대로 앉혀도 3분을 못 넘긴다.

“아이구, 이런 아이들과 5박 6일을 살아야 하나 나...!”

벌써부터 캠프가 얼마나 힘들지 감이 잡힌다. 요즘 캠프에는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보다 많다. 그래서 인지 더욱 긴장되고 힘이 많이 든다. 잠시도 가만있지 않고 장난치고 울고 울리고... 은해사까지 쉬면서 갈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나의 착각이다. 교사들과 스님들은 혹시 아이들이 다칠까 노심초사 제대로 앉아있을 것을 요구하지만 부모의 잔소리에 벗어난 아이들은 신나서 어쩔 줄 모른다. 이때 갑자기 아이들을 잠자기게 만든 것이 있었다. 그것은 버스 기사님이 안쓰러웠는지 틀어주신 만화영화. 제목은 ‘볼트(Bolt)’. 모든 아이들이 갑자기 조용해 졌다. 아, 만화영화의 위력이어!!

어느새 4시간이 걸려 도착한 은해사. 버스에 내려 일주문을 통과한다. 소나무 숲 길을 따라 흐르는 작은 시내에는 물고기들이 힘차게 헤엄치며 아이들을 반긴다. 작은 시내에 있는 산에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산다는 옛말이 있다. 아이들이 5박6일의 캠프를 통하여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본다.



자우 스님(버로자나국제선원 선원장)

## 찬덕불교 아름다운 등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이색 영구등

팔공산영구등

주름 등

영구등

천년영구등

영구등

영구등

※ 사찰명 인쇄시 제작기간이 소요되오니 예약 주문 바랍니다 ※

**전선(케이블)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범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흥은사

**신상품 찬덕 LED 전구**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모
- 열 발생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립니다

종류	일반전구	찬덕 LED 전구
소비전력	10W	2W
효율	10 lm/w	50 lm/w
연간전기료	2146원	429원
수명보장		30,000 시간

용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운장대 인등

(인등용 LED전구)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찬덕불교** [www.chanduk.com](http://www.chanduk.com)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영2리 261-6 / 전화 : 031)792-6288, 794-4055 / 팩스:031)794-6288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